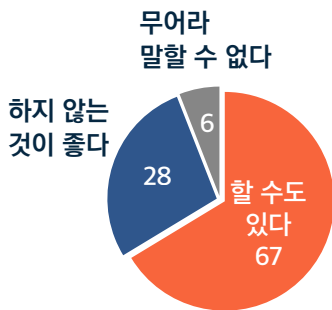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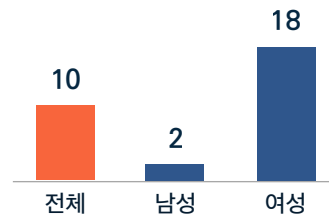
## 2 취업·결혼을 위한 성형수술 '할 수도 있다' 67%

- 취업이나 결혼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 정도(67%)가 '할 수도 있다'고 응답해, 성형수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성형수술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'남성'은 2%, '여성'은 18%가 '한 적 있다'고 응답하였고, 특히 여성의 성형 수술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(1994년 4%, 2004년 9%, 2015년 14%, 2020년 18%)

[그림] 취업·결혼을 위한 성형수술 수용 태도 (%)



[그림] 성형수술 '해본 적 있다' 응답률(성별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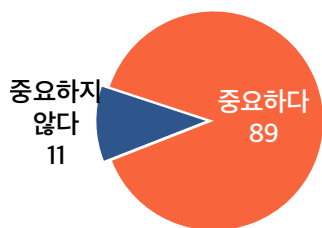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한국 갤럽, '외모와 성형 수술에 관한 인식', 2020.04.09. (전국, 19세 이상, 1,500명, 개별 면접 조사, 2020.02.07.-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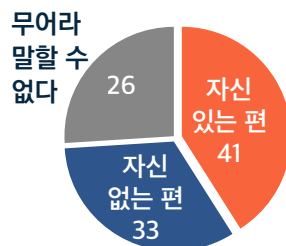
### ● 우리 국민, 절대 다수(89%)가 인생에서 외모 '중요하다'

-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를 묻은 결과, 89%가 인생에서 외모는 '중요하다'고 인식함
- 외모에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'자신 있는 편' 41%, '자신 없는 편' 33%으로 자신있다는 사람이 자신 없다는 사람보다 약간 더 많음
- 자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남성(44%)이 여성(38%)보다 더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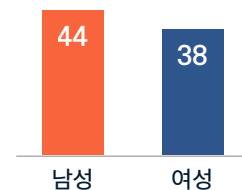
[그림] 외모에 대한 인식\*\* (%)



[그림] 외모에 대한 자신의 평가 (%)



[그림] 외모에 대한 '자신 있다' 응답률(성별) (%)



\*자료 출처 : 자료 출처 : 한국 갤럽, '외모와 성형 수술에 관한 인식', 2020.04.09. (전국, 19세 이상, 1,500명, 개별 면접 조사, 2020.02.07.-20)  
 \*\* 4점 척도로 '중요하다'는 '매우 중요하다'+어느 정도 중요하다'를 '중요하다'는 '전혀 중요하지 않다'+별로 중요하지 않다'를 합한 수치임